



컬럼비아대 한인학생회, 이노비에 성금 기부 컬럼비아대 학부 한인학생회 '키삭(KISAC)'이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에 티셔츠를 직접 제작·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했다. 남형주 학생회장(왼쪽 세 번째부터)이 강태욱 이노비 대표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노비 제공]



뉴욕한인회 차세대위원회 출범 뉴욕한인회가 지난 25일 20여 명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민선 한인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부터)과 도널드 김(브라운대) 차세대위원회 회장이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한인회 제공]



미동부 안동권씨 종친회 총회 미동부 안동권씨 종친회(회장 권선준)는 26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서 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권치욱 신임 회장은 한국 중친 및 여성 종친과의 교류, 젊은 2세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친회 제공]



미동부 김제향우회 송년 모임 미동부 김제향우회는 26일 플러싱 파도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등지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성준 회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향우회 제공]



훈민학당 한국학교 독도 미술대회 뉴저지주 버겐필드의 훈민학당 한국학교가 한글 및 독도 미술대회 시상식을 26일 열었다. 이날 대회 심사를 맡은 천세련씨(뒷줄 왼쪽부터), 원혜경 훈민학당 교장 등이 수상한 학생들이 함께했다. [훈민학당 제공]



박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뉴저지재향군인회(공동회장 정수용·정달성) 주최로 26일 뉴저지상록회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뉴저지지회, 월남 참전전우회, 공군전우회, 뉴저지해병전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저지재향군인회 제공]

판주의 경우 재검표를 위한 이의 신청 마감일이 28일이고 미시각은 30일이다. 마감일까지 각 주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검표는 3개 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최대 관련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린턴을 7만표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돼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다. 연방정부 역시 "선거 당일 악의적인 해킹 활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밝혔다.

다와 관련, 의회전문지 더힐은 "클린턴은 대선 당일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 한동안 개표를 더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결국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불복 논란을 무릅쓰고 클린턴 측의 재검표 동참이 도리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 재수사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는 이미 끝났다. 녹색당의 재검표 요구는 돈을 노리

는 사기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 클린턴을 향해 "클린턴은 투표일 밤 내게 전화해 결과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선거 캠페인 중 트럼프를 향해 대선 불복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클린턴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We are with you.

WooRee 우리보험

INSURANCE.COM

“트럭&밴보험전문” 사업 자동차 주택 생명 건강

NJ 201.944.9655 NY 718.994.9655

수영교실

미주한인 최초 최대 수영 전/문/학/원

스트림라인수영클럽

STREAMLINE SWIM CLUB

NY: 917.767.SWIM(7946)
NJ: 201.747.SWIM(7946)
streamlineswimclub.nj@gmail.com

NY & NJ Law office of Bai & Seibel, P.C.

제니퍼 배 변호사 유산·상속법

- 유언장 작성.
- Trust 사용으로 주/연방 상속세와 Gift 세금 삭감.
- 재산규모에 합당한 Medicaid 보호.
- 복잡한 법정처리 없는 유산분배.

T. 516-466-1401
505 Northern Blvd., Suite # 207, Great Neck, NY 11021

최고의 선택

하나 속 화기 내 과 새 기계 도입

Olympus 최신 내시경